

2016년 현충일 특별 집회 표어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책인데,
이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증가와 번식과 번성과 확산을 위해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긴 기간 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증가와 확산은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산이다.
이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사람들 안으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을 그분의 재생산이 될 수 있게 하셨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반드시 생명을 본성으로 하고,
생명을 내용으로 가지며,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즙이신
생명 주시는 영의 충분한 공급을 받을 때,
이 가지들은 내적인 생명 공급의 넘쳐흐름인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증가하시고 자라시며
교회의 내용과 요소가 되시어,
교회를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2016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현충일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교회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가

메시지 1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증가

성경: 행 28:31, 요 5:17, 행 1:13-14, 6:7, 11:23-24, 19:20, 26:18

- I.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책인데, 이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행 28:31.
- A. 주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요 5:17)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주님 또한 일하고 계심을 보여 준다.
 - B.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록이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많은 그릇들이 그분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분의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멈추지 않았다.
 - C. 그분의 일은 왕국이 임할 때까지,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진하시며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한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분의 노예들은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 계 22:3, 비교 행 13:36상.
 - D.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과 확산을 위해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긴 기간 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었다.
 - E. 그리스도의 증가와 번식과 번성과 확산을 위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한(롬 8:29)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함으로(12:5)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고 그분의 영원한 뜻을 성취한다. 이것은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스물한 권의 서신서들과 요한 계시록에서 상세하게 계시된다.
 - F. 하나님은 단체적이며 빛나는 한 그릇, 곧 증거를 지닌 한 그릇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는 데로 이끌려야 하며 몸의 생명을 살기를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쓸모가 없으며 결코 그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 롬 12:1-3, 고전 12:12, 계 1:10-12.
 - G. 심지어 이기는 이들의 증거도 교회 전체를 위해 유지되는 것이다. 이기는 이들이 그 일을 하며, 그 유익은 온 교회가 받는다 — 계 12:5-9, 2:7, 11, 17, 26-28, 3:3, 5, 12, 20-21.
 - H. 이기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의 터 위에 서 있으며,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온 교회를 온전하게 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이기는 이들의 승리도 단체적인 승리이다 — 비교 빌 1:19.
- II.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해 여전히 확장되고 번성하고 있다 — 행 6:7, 12:24, 19:20.
- A.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확장하다(혹은 ‘자라다’—원문 직역)’라는 말은 생명의 성장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로서 자라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가하시기 위한 것, 즉 하나님께서 자라시기 위한 것이다 — 막 4:14, 골 2:19.
 - B.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번성하다’라는 말은 인수 면에서 그리스도의 증가를 가리킨다. 사실상 제자들의 번성은 말씀의 확장에 달려 있다.

- C. 새로운 제자들이 '주님께 더해져' 그리스도의 일부분,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다 — 행 5:14, 11:24, 롬 15:16.
- D. 우리는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격려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으며, 주님과의 긴밀한 교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 — 행 11:23.

III. 사도행전의 계속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장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나의 본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장으로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았다 — 빌 1:19-21상, 행 9:4-5, 15, 26:19, 딤후 1:16.

- A.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웠다 — 행 9:1-19, 25-27, 22:14-15, 엡 4:20-21.
- B.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택된 그릇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그리스도로 흘러넘쳤다 — 행 9:15, 고후 4:7, 엡 1:22-23, 3:19.
- C.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 행 9:11, 13:1-3, 14:23, 16:13, 25, 20:36, 21:5, 22:17, 28:8, 엡 6:18, 골 4:2.
- D. 바울은 몸을 의지하면서,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모든 것을 하였다 — 행 9:11, 17-18, 25-27, 고전 1:1, 12:14-27.
- E.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했다 — 행 9:14, 21, 22:16, 딤후 2:22, 롬 10:12-13, 빌 2:9-11.
- F.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고난을 견디는 데 넘치는 힘을 가진 한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인간 생활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해 수행되었던 고난의 사역이었다 — 요 7:37-39, 행 9:16, 16:7, 22-34, 빌 3:10, 골 1:24, 고후 6:4, 11:23, 히 6:19-20, 13:13.
- G. 바울은 그의 연합된 영(그의 사람의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신 신성한 영) 안에서 살았다 — 행 17:16, 19:21, 롬 8:4, 6, 16, 고전 6:17.
- H. 바울은 본질적으로 그의 존재를 위해 기쁨의 영으로 충만했고, 경륜적으로 그의 기능을 위해 능력의 영으로 충신했다 — 행 13:9, 52, 엡 5:18.
- I. 바울은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항상 간직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였다 — 행 23:1, 24:16, 딤후 1:19, 3:9.
- J.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다 — 행 16:25, 27:35, 빌 4:4, 골 3:16, 살전 5:16-18.
- K.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증거를 땅끝까지 확산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협조를 얻었다 — 행 9:20, 27, 26:22-29, 28:31, 1:8, 살전 2:2, 비교 롬 15:24, 28.
- L. 바울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성도들을 소중히 보살폈고,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모든 진리들로 성도들을 보양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생활 안에서 나타내 보였다 — 행 20:18-38, 살전 2:1-12.
- M. 바울의 네 번째 사역 여행(행 27-28장)은 특별한 방식으로 바울의 생활을 보여 주는데, 그의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빌 1:19-21상, 3:8-9, 14, 4:13).
 1. 사도가 오랫동안 감금된 채 순탄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하시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이러한 삶은 완전히 위엄 있는 삶이었다 — 행 28:5-9.
 2.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하신 하나님-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증인이었다!

3. 바울은 자신의 생활과 사역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표현했다. 참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 살고 계셨다 — 갈 1:15-16, 24, 2:20, 3:14, 비교 행 28:6.
4. 주님은 사도를 폭풍이 이는 바다 위에서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주인으로뿐만 아니라(행 27:24), 생명의 보증인과 위로자로 삼으셨다(22, 25절). 더 나아가 이제 평온한 육지에서 주님은 그를, 미신적인 사람들 눈에 신기한 매력을 지닌 사람만이 아니라(행 28:1-6), 그들의 치료자와 기쁨이 되게 하셨다(7-10절).
5.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받은 따스한 환영과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받은 사랑스러운 돌봄(행 28:13-15)은 초기에 교회들과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몸의 생활을 보여 준다.
 - a.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가 결박당한 죄수로서 사탄이 점령한 제국의 어두운 수도(首都)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엡 6:20, 마 28:18-19)로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곧 몸의 생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부분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 b. 그는 사탄의 제국(옛 창조에 속한 사탄적인 혼돈) 안에서 종교의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교회생활(새 창조를 위한 신성한 경륜)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 N.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실재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 행 28:31.

IV.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증가와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위임의 모든 것을 포함한 내용을 밝혀 준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A.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희년(禧年), 즉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해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 B.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위임의 내용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체험과 실재가 되게 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이러한 체험과 실재 안으로 이끌 수 있다 — 엡 3:8-9.

V. 우리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락방의 헌신을 함으로써, 주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歷史)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 행 1:13-14, 영한 동번 찬송가 907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50장).

- A. 우리는 어떤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다. 이 회복은 다락방에서의 특별하고도 비범한 헌신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 B. 주님의 움직임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곧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 눅 12:49-50, 행 2:3-4, 17:6하, 롬 12:11.
- C.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전환할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락방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의 증거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다락방에 있겠습니다.”